

콜럼버스 이전의 美 대륙 인디언 인구는 얼마였는가?

1830년대 아메리카에 있던 50여개의 인디언 부족을 찾아 6백여장의 초상화를 그린 바 있는 19세기의 미술가 조지 칼턴은 콜럼버스 이전 북미의 인디언 인구를 1천6백만으로 잡았으며 미국 통계국은 콜럼버스시대가 개막될 때 미국 영토안의 원주민을 50만 이내로 추정했다.

또 인류학자 알프레드 크뢰버는 1492년 남북아메리카에 8백40만명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이렇듯 학자들마다 다르게 추정하는 가운데 과연 아메리카 대륙엔 콜럼버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는가 새롭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세기 미술가 조지 칼턴은 “많은 인구를 가진 고귀한 인종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빠른 걸음으로 멸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30년대에 그는 50여개의 인디언부족을 찾아가서 6백여장의 인디언의 초상화와 그들의 생활상을 그렸는데 대부분은 오늘날 스미소니언박물관에 걸려 있다. 그가 만난 인디언들은 외래 정착자들이 오기 전에는 인디언들이 더없이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칼턴은 북미의 인디언수를 1천6백만으로 잡았다. 그러나 당시 백인들과 접촉하기 전의 인디언 인구를 칼턴의 추정처럼 그렇게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스미소니언의 한 전문가는 인디언들이 그런 숫자에 이르기에는 너무 무능했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수백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망상이라고 비웃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도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는 “텅빈 대륙이었고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 인구통계국은 1894년 인디언들의 전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조사결과 콜럼버스시대가 시작될 때 현 미국 영토 내의 원주민 인구는 50만을 넘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턴은 1천6백만명으로 추정

그러나 한세기가 지난 오늘날 이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다. 현대의 학자들은 오히려 칼턴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 그중에는 1492년 리오 그란데(미국 콜로라도주 서남부에서 발원, 뉴멕시코주 중앙부를 관류하여 텍사스주와 멕시코의 국경을 흘러 멕시코만으로 빠지는 길이 2,900km의 강이름)이북에 살던 사람은 당시 영국 인구만큼이나 많은 1천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도 있다. 서반구의 인구는 15세기의 유럽의 7천만을 능가했을 것 같다. 인디언의 인구를 상향추정하는 배경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미 대륙으로 이주한 유럽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져 나간 천연두, 홍역과 그 밖의 구세계의 질병으로 대부분 사망했다는 비교적 새로운 견해가 있다. 역사가 윌리엄 맥네일은 1976년 「전염병과 사람들」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최초의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미 대륙에는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의 해답은 아니다. 그 시절에는 유럽의 한두 도시를 제외하면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초의 국세조사가 생긴 것은 그보다 몇세기 뒤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1790년, 신생국가 미국도 1790년,

프랑스와 영국은 1801년 그리고 중국은 1953년에야 인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지 칼틴이 인디언 인구를 추정하던 방법은 당시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였다. '미국에 한때 수백만의 인디언이 거주했다'는 칼틴의 생각을 오만하게 무시하던 미 인구통계국도 1894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스미 소니언박물관의 민족학자 제임스 무니는 군인, 전도사 등이 만든 인디언 부족 인구에 관한 역사적인 문헌을 조사한 결과 군인들은 자기들의 정복을 보다 영웅적으로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들이 구제한 영혼의 수를 불리기 위해 상례적으로 과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수를 줄여 나갔다. 1928년 출판된 부족단위 인구추정치는 리오 그란데 이북의 인디언 인구를 1백15만으로 보았다. 무니는 1492년의 인구가 아니라 백인과 처음 접촉한 뒤의 기간중 인구를 추정한 것이다. 그는 백인들이 만난 인디언의 수는 1492년의 인디언의 수와 같다고 가정했다.

인류학자 알프레드 크뢰버는 1934년 외삽(外挿: 관측된 값으로부터 미확인의 변수값을 추정하는 것)법을 이용하여 무니의 추정치로 나머지 남북 아메리카 전역의 인디언 인구를 추정했다. 그는 지도와 면적계(面積計)라고 불리는 장치를 가지고 여러 분야별로 측정하여 이것을 인구밀도에 적용했다. 미국의 동부지방은 평방마일당 평균 1인 이하를 배정했다. 또 분명히 인구가 많은 잉카와 아즈텍 같은 리오 그란데 이남지방에서는 더 많은 인구밀도를 배정했다. 그



▲ 한때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졌다고 추정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

는 각 지방의 인구밀도를 면적(평방마일)에 곱하여 1492년 아메리카대륙에는 8백40만명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했다. 이들중에 4백20만명은 북아메리카 그리고 4백20만명은 남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에 살았다고 추산했다.

사라진 4천8백만명의 행방은?

그러나 크뢰버 이후에는 그렇게 낮

게 추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40여년간 학자들은 16세기의 멕시코의 세례, 결혼, 세금징수에 관한 스페인의 보고에서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전염병에 관한 보고에 이르기까지 수천권의 문헌을 뒤졌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만나면 이 데이터에서 추리를 이끌어 내는 현명한 방법을 고안했다.

예컨대 탐험가들은 좀체로 총인구를 추정하지 않고 대신 전사(戰士: 인디언 병사)들의 숫자만 보고한다. 학자들은 이제 여자,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전인구를 나타내기 위해 전사의 수에 보정계수 5를 곱한다. 이런 방법은 또 세례, 인디언건물 심지어는 카누의 수와 콩과 옥수수 경작면적에도 적용한다. 얼마나 많은 굴들이 소비되었으며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굴을 먹었는가 추정하는데 굴껍질이 문헌 고고학 유적지도 이용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 학자들은 멕시코 중부 한장소에서만 크피버가 서반구 전역에 살았다고 추정했던 숫자의 3배나 되는 인디언들이 거주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966년에 이루어진 최고치는 하나의 도전적인 이론의 뒷받침을 받았다. 인류학자 헨리 도빈스는 질병이 서반구 전역에 걸쳐 인디언 인구를 95% 또는 그 이상 줄였다고 주장했는데 전염병이 면역기능이 없는 사람들을 엄습하면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빈스는 인디언 인구를 최저수준으로 잡고 이 숫자를 20 또는 25로 곱했다.

예컨대 리오 그란데 이북의 아메리카땅에서는 인구조사에서 인디언 인구가 49만명이라고 보고한 20세기 초에 최저치에 이르렀는데 도빈스의 추정은 현재의 미국과 캐나다 땅에 9백80만에서 1천2백20만의 인디언들이 한때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서반구 전체의 인디언 인구는 1492년에 9천만에서 1억1천5백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잉카제국 인디언은 3천여만명

그러나 비판자들은 도빈스는 너무 지나치게 추정한다고 보고 있다. 전염병은 도빈스의 주장처럼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치명적인 것도 아니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자기의 숫자를 개정하지 않고 은퇴한 도빈스는 자기의 방법이 너무 단순했다는데는 동의하면서 조사연구를 국지화하면 보다 정확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페루의 현지조사에 참여했던 동료 한사람은 도빈스에게 그가 잉카제국의 인디언 인구를 3천만에서 3천7백만으로 추정했지만 2천만 정도는 너무 지나친 수치라는 사실을 납득시켰다. 「커렌트 엔트로폴로지」지에 논문을 실은 뒤 32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도빈스는 전사의 수와 사용한 식량 등 다른 학자들이 사용한 방법으로 다른 지역을 측정한 결과 1966년의 그의 가정치가 너무 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논문은 카리비안지역의 1492년 인구를 50만으로 추정했으나 이제 5백만이나 그 이상이었다는 사실에 다른 학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어떻게 실수(實數)와 접근할 수 있을까? 최근 지리학자 윌리엄 데네반은 여러 학자들의 최적치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추정치의 타협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한 결과 1492년 남부 아메리카에는 5천4백만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리오 그란데 이북에는 3백80만명이 살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수십년간의 조심스런 연구끝에 역

사가 우드로우 보라는 학자들이 30~50%의 오차범위에서 마침내 추정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위스콘신-매디슨대학 역사학자 데이비드 헤니지는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인데도 이에 관련된 논문은 수만페이지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에 절대 총수는 영원히 알 수 없다고 해도 좀처럼 잊을 수 없는 숫자들이 있다. 버클리의 지리학자 칼 사우어는 콜럼버스의 동생 바르톨로뮤가 히스파니올라(현 하이티 및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1496년에 인구조사를 한 증거를 인용했다. 스페인인들은 1백10만명의 인디언들을 계상했다. 이 합계는 히스파니올라의 스페인 지배하의 반쪽만 반영하고 어린이들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우어는 한때 3백만의 인디언들이 이 섬에 살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492년 후의 세대에서는 히스파니올라의 인디언 인구가 1만1천명 이하로 급감했다고 한 스페인 거주자는 보고했다.

이 섬의 인디언 인구의 괴멸은 이를테면 ‘예고편’에 불과했다. 1650년의 기록은 남북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의 인디언 인구가 통틀어 6백만에 지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데네반의 방법처럼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인 5천4백만에서 6백만을 제할 때 매우 두려운 추정치가 나온다. 콜럼버스가 도래한 뒤 1백50년간 서반구의 인명손실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세계 인명손실과 맞먹는 셈이 된다. ⑤7

〈春堂人〉